

케냐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6. 3.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10
IV. 국제신인도	13
V. 종합의견	15

I. 일반개황 [완료]

면적	580천 km ²	G D P	638억 달러 (2015)
인구	46.1백만 명 (2015)	1 인 당 GDP	1,386달러 (2015)
정치체제	공화제(대통령 중심제)	통화단위	Kenyan Shilling (KSh)
대외정책	친서방 정책	환율(달러당)	98.18 (2015)

-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 연안에 위치한 케냐는 한반도 면적의 2.6배에 달하는 국토와 약 4,605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남수단, 우간다, 탄자니아 등과 접경하고 있음.
- 농업 위주의 경제구조와 열악한 인프라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관개시설의 부족과 수력발전에 대한 높은 의존으로 인해 강우량의 수준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좌우하고 있음.
- 최근 동 지역에서 경제성 있는 유전·가스전의 신규 발굴이 이어지면서 국제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금, 희토류, 석탄 등 광업 부문도 성장 가능성이 높음.
-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최대 부족인 Kikuyu족을 위시한 40개 이상의 부족들 간에 독립 이래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어 왔으나, 최근 정치 상황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2015년 경제성장률은 인프라 투자 지속, 농업과 제조업의 성장 등으로 5.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

○ 케냐 경제는 2015년에는 저유가 지속에 따른 에너지 비용 감소, 인프라 투자 지속, 농업과 제조업 부문의 성장 등을 바탕으로 전년(5.3%)과 거의 동일한 5.4%의 성장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됨.

○ 2016년에는 소비자물가 안정, 인프라 부문 투자 등에 힘입어 2015년과 거의 동일한 5.5%의 경제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양호한 강우량에 의한 식료품 가격과 전력요금 안정으로 전년 대비 하락

○ 케냐는 관개 시설이 빈약하고 전력 생산의 60% 이상을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어 매년 강우량에 따라 식량 및 전력 생산량이 크게 좌우되며, 이 2가지 요소가 물가상승률의 결정을 좌우하고 있음.

○ 2015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강우량 부족에 의한 식료품 가격 및 전력요금 상승이 저유가 지속에 따른 에너지 비용 감소를 상쇄함에 따라 전년(6.9%) 대비 약간 하락한 6.6%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6년은 전년보다 양호한 강우량이 예상됨에 따라 식료품 가격 상승세가 반전되며 2015년보다 하락한 5.6%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o	2016 ^f
경제성장률	4.6	5.7	5.3	5.4	5.5
재정수지 / GDP	-5.0	-5.7	-7.2	-8.1	-8.0
소비자물가상승률	9.4	5.7	6.9	6.6	5.6

자료: IMF, EIU.

□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

- 재정수지는 인프라 건설 투자 확대 및 국내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 부문의 임금 인상 등 재정지출 확대로 지속적인 적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2015년에는 지방분권화 가속화에 따른 신생 지자체 앞 재정 이전 등으로 재정지출이 더욱 증가하면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전년 (7.2%) 대비 거의 1% 포인트 상승한 8.1%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동 비율은 2016년에도 거의 동일한 8.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농업 의존적 경제로 기후조건과 농작물 국제가격에 큰 영향을 받음

- 케냐 경제는 농업 부문이 GDP의 27%를 차지하는 1차산업 중심의 구조임에도 부족한 관개시설, 낙후된 영농법 등으로 농업 전반의 효율성이 낮은 상황임.
- 양대 수출품목인 차(tea)와 원예작물(화훼, 과일 등)이 상품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3%와 19%로, 강우량 등 기후조건과 농작물의 국제시세 등이 국가경제 전반을 좌우하고 있음.

□ 제조업 등 여타 산업 부문은 취약한 수준

- 케냐는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산업화된 국가임에도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에 불과하며, 여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프라 미비, 숙련 노동력의 부족, 관료의 만성적인 부정부패 등의 부정적 요인들이 제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 도로포장율이 약 9%에 불과하며, 철도 운행도 일부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 경제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임. 상하수도 시설도 미흡하여 인구의 50% 미만이 안전한 식수를 제공받고 있음.

□ 취약한 전력 인프라가 산업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

- 케냐의 전력보급률은 20% 안팎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30% 이상)에 미달하며, 전력공급도 대도시 일부 지역에만 이루어지는 등 취약한 전력 인프라가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아울러 수력발전 비중이 높아(50% 이상) 갈수기에 전력난이 가중되고 있음.
- 한편, 케냐 정부는 전력 부문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가전력개발계획”을 통해 발전설비 용량을 2017년까지 총 5538MW로 증대하고 (지역발전량을 현행 157MW에서 500MW로 증대하는 계획 포함) 2018년까지 18.3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 배전망 확장을 추진 중임.

나. 성장 잠재력

□ 주요 외화획득원인 관광산업은 테러 공격으로 성장 둔화

- 인도양 연안의 해변과 사파리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케냐의 관광산업은 동국의 주요 외화획득원으로, 케냐 정부는 관광산업을 “Vision 2030”의 6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는 등 관광 부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2013년 이래 소말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Al Shabaab에 의한 테러 공격이 빈발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타격을 입었으며, 현재도 테러 위협이 계속되어 관광산업 진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석유자원 개발의 본격화로 2016년 중 석유 수출 개시 추진

- 최근 케냐를 위시한 동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경제성 있는 유전·가스전의 신규 발굴이 이어지고 있으며, 탐사작업 진행에 따라 유전·가스전의 추가 발굴 가능성이 높음.
- 케냐의 경우 현재 영국 Tullow Oil과 Royal Dutch Shell, 프랑스 Total 등 20개 이상의 외국기업들이 50개 이상의 유전 블록에 대한 탐사를 진행하고 있음.

- Tullow Oil은 2014년 1월 케냐 South Lokichar 분지에서 원유매장량을 추가로 확인하였으며, 현재 케냐 전체의 원유매장량은 최대 100억 배럴에 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Uhuru Kenyatta 대통령은 금년 중 상업적 원유 채굴의 개시를 목표로 석유 수출을 위한 특별운송 기획팀을 조직하고 동 프로젝트의 총괄을 수송부 장관에게 위임하였음. 동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케냐는 금년 중 동아프리카 지역 최초의 원유수출국이 될 전망이다.

□ 금, 희토류, 석탄 등 광업 부문의 성장 가능성 높음

- 케냐는 석유와 천연가스 외에도 북서부 인도양 연안 Kwale 지역에서 희토류인 니오븀(niobium), Kilimapesa 지역에서 금광, Kitui 지역에서 철광석 등이 발견되면서 광업 부문의 성장이 기대됨.

다. 정책성과

□ 경제개발계획 “Vision 2030” 은 경기침체 등으로 가시적 성과 다소 미흡

- 케냐 정부는 2008년 초 중장기 경제개발정책 “Vision 2030”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음. 동 계획은 관광업, 농업, 제조업, 무역, IT, 금융 등 6대 주요 분야를 선정, 2012년까지 경제성장률 2배 달성 및 2030년까지 중소득국가 반열에의 진입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동 계획에 의해 케냐 정부는 도로의 신설 및 개/보수, 교량 신설을 비롯한 사회 인프라 개발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고질적인 부정부패,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음.

□ 광업법을 통해 재정수입 증대, 국영광업공사 신설 등 추진

- 석유, 천연가스, 각종 광물의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현 정부는 2013년 4월 출범과 더불어 광업부를 신설, 1940년 영국 식민지 시절 제정된 광업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광업법(Mining Bill)을 제정하여 2015년 7월 의회의 승인을 받았음.

- 광업법은 광물 개발 로열티를 대폭 인상하고 로열티 산정 기준을 순매장가치(net value)에서 총판매가치(gross sales value)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아울러 정부는 국영광업공사(National Mining Corporation)를 설립하여 광산 부문의 투자, 개발, 탐사, 채굴에 직접 참여하는 계획을 추진 중임.

□ 중앙은행, 유연한 통화정책 실시로 외부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

- 케냐 중앙은행(CBK)은 대외 경제상황의 변동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의 완화 또는 긴축을 적절히 취하여 환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안정에 주력하고 있음.
- CBK는 2015년 중반 기준금리를 종전보다 300bp 높은 11.5%로 인상한 뒤 이를 계속 유지하며 케냐실링의 환율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3. 대외거래

□ 자본재 수입 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로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 2004년 이후 해외거주자 송금 유입 확대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흑자, 관광산업의 성장에 따른 서비스수지 흑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개발과 경제성장에 따른 자본재, 원유 등 수입 증가로 큰 폭의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여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 2015년에는 저유가 추세에 따른 원유 수입액 감소, 서비스수지 및 경상이전수지 흑자의 증가에 힘입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전년 대비 개선된 6.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세는 2016년에도 계속되어 동 비율이 6.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최근의 외환보유액 증가는 대외차입 증가에 따른 결과

- 외환보유액은 최근 수년간 해외거주자로부터의 송금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으로 2011년 말 42.3억 달러에서 2015년 말 73.2억 달러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됨. 다만, 2014~15년의 외환보유액 증가는 채권 발행을 포함한 대외차입 증가에 보다 많이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국채 발행과 대외차입 증가로 정부채무 및 외채 규모 급증

○ 케냐의 총외채규모는 최근 수년간 인프라 부문 투자, 석유자원 개발 등에 투입될 재원의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과 대외차입으로 인해 계속 증가하여, 2015년 말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12년 말(38.1%) 대비 10.3% 포인트 상승한 48.4%에 이른 것으로 추정됨.

- 이에 따라 D.S.R.도 2012년 말 기준 6.7%에서 2015년 말 33.8%로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어, 단기간 내에 대외지급능력이 악화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다만, GDP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은 2012년 108.0%에서 2015년 88.3%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됨.

<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e	2016 ^f
경 상 수 지	-4,255	-4,872	-6,339	-4,372	-4,589
경 상 수 지 / G D P	-10.5	-8.8	-10.4	-6.9	-6.8
상 품 수 지	-9,308	-10,221	-11,436	-10,016	-10,426
수 출	6,165	5,803	6,174	6,185	6,585
수 입	15,472	16,024	17,610	16,201	17,011
외 환 보 유 액	5,682	6,547	7,878	7,323	7,720
총 외 채 잔 액	15,507	17,843	25,578	30,890	n/a
총 외 채 잔 액 / G D P	38.1	32.3	42.0	48.4	n/a
D S R	6.7	28.1	30.9	33.8	n/a

자료: IMF, EIU, OECD.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상황

□ 2013년 4월 Kenyatta 대통령 취임 후 정치상황은 안정적

○ 2013년 3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초대 대통령 Jomo Kenyatta의 아들이자 연합정부의 부총리인 국민연합당(TNA)의 Uhuru Kenyatta 후보가 당선되어 4월 취임한 이후 안정적인 정치상황이 유지되고 있음.

- 앞서 Kenyatta 대통령은 2007년 말 대선의 부정 시비로 촉발되어 발생한 대규모 종족간 유혈사태와 관련, 지지자들이 저지른 살인, 추방, 학대 등 비인도적 행위를 배후 조종한 간접적 공범으로서 2011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되었으나 2014년 12월 ICC 검찰측이 기소를 철회하여 일 단락되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부족간 갈등은 권력 분점으로 상당 부분 진정

- 케냐는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Kikuyu족을 위시한 40개 이상의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 이후 부족간 갈등이 지속되어 왔음. 2007년 대선 후 발생한 유혈사태 역시 지속적으로 정치-경제계를 지배 해온 Kikuyu족에 대한 타 부족의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 분석됨.
- 2007년 말의 대선으로 촉발되어 3개월간 지속된 유혈분쟁은 2008년 4월 헌법 개정 및 대연정 구성으로 일단락되었으며, 2013년의 대선이 평화적 으로 치러진 이후 부족간 갈등은 상당 부분 진정된 것으로 분석됨.

□ 소말리아 난민 유입과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의 테러로 치안 악화

- 1991년 이래 내전을 피해 케냐로 탈출한 소말리아 난민들 가운데 소말 리아의 알카에다 연계 세력인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Al Shabaab의 조직 원들이 포함되어, 난민촌과 케냐 국내에서 테러 공격을 저지르면서 치안 악화의 요인으로 부각되었음.
- Al Shabaab의 조직원들은 2013년 9월 Nairobi의 Westgate 쇼핑몰 테러 (72명 사망), 2015년 4월 가리사 대학교 테러(148명 사망) 등 케냐에서 대규모 살상을 자행하여 케냐의 치안 유지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케냐 정부는 Al Shabaab 조직원들의 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13년 11월, 향후 3년간 자국 내의 소말리아 난민들을 전원 소말리아로 돌려보낸다 는 내용을 담은 소말리아 정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HCR)와의 3 자 협정에 서명하였으나, 난민들의 전원 송환이 실현될지는 미지수임.

3. 국제관계

□ 동아프리카 지역의 리더이자 동아프리카공동체(EAC)의 중심국

○ 케냐는 탄자니아와 더불어 동아프리카 지역의 리더이자 동아프리카공동체(EAC)의 주도국으로, 지역통합의 가속화와 동아프리카 국가간 무역거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동아프리카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EAC):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의 5개국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임. 2005년 역내 관세동맹의 출범, 2009년 단일 공동시장 창설협약의 체결, 2010년 역내 공동 관세율의 적용 등 궁극적 경제-정치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 EAC 5개 회원국들은 2014년 10월 유럽연합(EU)과 경제동반자협정에 서명하였으며, 각국 의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금년 중 비준될 전망이다.

□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과 협력관계 강화

○ 케냐는 군사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미국을 비롯하여 EU, 중국, 인도 등 주요 원조국들과 다방면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교역 부문의 경우 주요 수출대상국은 영국, 우간다, 네덜란드, 탄자니아, 미국 등이며, 주요 수입대상국은 아랍에미리트(석유, 천연가스 등), 인도, 중국, 일본, 남아공 등임.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EACA 회원국들 중 유일하게 고채무저소득국에서 제외

○ 케냐는 2004~06년 기일도래분 4.8억 달러의 채무 중 3.5억 달러에 대한 2004년 파리클럽과의 채무재조정에 합의한 바 있음.

- 케냐의 외채상황은 여타 동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EAC 회원국들 중 유일하게 고채무저소득국(HIPC)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음. 아울러 케냐 정부는 국제시장에서의 신용도 문제를 고려하여 과도한 양허성 차관의 수혜를 지양하고 있음.
- 2015년 6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로부터의 대출규모는 단기 2.0억 달러, 중장기 14.8억 달러 등 총액 16.8억 달러로, 이 가운데 중장기대출 0.8억 달러에 대해 연체 중임. 한편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 대한 연체는 없음.

□ 인프라 채권과 국채 발행으로 정부채무 및 외채 급증에 대한 우려

- 케냐 정부는 인프라 확충의 재원 조달을 위해 2009년 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1,430억 케냐실링 규모의 인프라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한 바 있으며, 2015년 3월에도 12년 만기 250억 케냐실링 규모의 인프라 채권을 발행하였음.
- 케냐 정부는 2014년 6월 케냐 역사상 첫 국채 발행(20억 달러 규모)에 성공하였음. 발행금리는 5년 만기(5억 달러 규모) 5.875%, 10년 만기(15억 달러 규모) 6.875%로 당초 예상보다 케냐측에 양호한 조건임.
- 한편, IMF는 케냐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13년 12월 7억 5,000만 달러 및 2015년 2월 6억 8,800만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부도위험 때문이라기보다 잠재적 외부충격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로 평가됨.
- 그러나 국채 발행 및 대외차입 증가로 인한 외채 규모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 가중으로 외채상환위험이 고조되고 있음.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ECD는 2003년 6월 케냐에 대하여 6등급을 부여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6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아울러 Fitch는 B+, Moody's는 B1의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V. 종합 의견

- 케냐 경제는 2015년에는 저유가 지속에 따른 에너지 비용 감소, 인프라 투자 지속, 농업과 제조업 부문의 성장 등을 바탕으로 5.4%의 성장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6년에는 소비자물가 안정, 인프라 부문 투자 등에 힘입어 역시 5.5%의 성장을 시현할 전망이다.
- 정부 주도의 인프라 건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자본재 및 에너지 자원의 높은 수입의존도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로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가 지속되는 점은 경제전망에 부정적인 요소임.
- 반면, 석유개발의 진행으로 금년 중 동아프리카 지역 최초의 원유수출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에너지 개발이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기대되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임. 다만, 인프라 확충 재원 마련과 쌍둥이 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 및 대외차입 증가로 외채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임.
- 2013년 9월 수도 Nairobi의 Westgate 쇼핑몰 테러사건의 근원이 된 소말리아로부터의 난민 유입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준동이 케냐의 사회안정에 지속적인 위협으로 작용한다면, 향후 케냐의 국가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음.

선임조사역 오경일(☎02-3779-6664)

E-mail : oki1122@koreaexim.go.kr